

## Laser in periodontal & implant therapy

은희중 원장 (Dr. Eun HJ)  
에인치과의원



치의학 분야의 레이저 치료의 발전은 술식의 변화와 함께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. 수많은 레이저 기기들이 임상에 응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치과 영역에서의 적절한 레이저 기기를 선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.

그동안 Argon, diode, CO<sub>2</sub>, Nd:YAG, Ho:YAG, Er:YAG, 그리고 Er,Cr:YSGG가 개발되어 치료에 응용되었다.

1992년에 첫 번째 Er:YAG 레이저 시스템이 시장에 도입되었으며, 1997년에 Erbium 레이저는 Cavity removal, Cavity preparation 과 conditioning 에 대하여 FDA 승인을 받았다.

일반적인 치주치료와 비교해서 레이저 치료의 장점인 bactericidal effect와 bio-stimulation 효과는 환자와 술자 모두에게 편리성과 효율성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고 있다. 시술 중에 출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시야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, 술 후 부종이나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도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
레이저 치료의 특징 중 또 하나는 analgesic effect 의한 국소 마취제 사용의 감소를 들 수 있다.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 술식과 비교해서 레이저 치료를 병행할 경우 국소 마취제 사용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.

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당뇨병, 심장병,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증가는 우리 치과진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.

이러한 현실에서 레이저치료를 통한 국소마취제 사용의 절감은 환자와 술자 모두에게 커다란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.

아직까지 레이저치료에 있어서 조직에 대한 반응과 치유촉진 효과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현실에서 보다 더 많은 연구와 임상결과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, 치주영역에서의 레이저치료의 발전가능성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이번 심포지움을 통하여 논하고자 한다.

주요 학력 및 경력:

단국대학교 치과 대학 졸업

단국대학교 치과대학원 석, 박사 (치주과학 전공)

세계임상레이저학회(World clinical laser institute) master

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

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 교실 외래교수

현 예인치과 원장